

대학생들의 인터넷 중독과 구강보건행태와의 상관관계

Correlation between Internet Addiction and Oral Health Behavior in University Students

장정유

안동과학대학교 간호학과

Jung Yoo Jang(jjyjoan0307@naver.com)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과 구강보건행태와의 상관관계를 연구의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인터넷 중독은 성별과 흡연 유·무 변수에서, 구강보건행태는 학년별과 흡연 유·무 변수에서, 인터넷 중독 차이는 성별과 흡연 유·무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비보건계열 1학년, 흡연자와 음주자이며 집에서 거주하는 남학생에서 높게 조사되었다. 구강보건행태는 “수면 시 편측으로 누워 자기”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잠자기 전까지 인터넷 사용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그에 따른 부정적인 구강보건행태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대학생들의 인터넷 중독과 구강보건행태와의 상관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대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은 구강보건행태로도 나타남을 연구결과로 검증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 대학생들의 학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적절한 인터넷 사용을 위한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인터넷 사용 규제와 대학생 스스로의 구강보건행태의 문제성을 인지할 수 있는 구강보건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 중심어 : | 중독 | 인터넷 | 비보건계열 | 구강보건행태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addiction and oral health behavior among university students.

The results, internet addiction was found in gender and smoking, oral health behaviors were classified according grade and smoking, differences in internet addiction were found in gender and smoking,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nd in common, high was first grades, non-health related major, smokers and drinkers, male students living at home. Oral health behaviors were found to be "lying on one side when sleeping" the highest, indicating that frequent use of the Internet occurred before sleep and thus negative oral health behaviors. In addition,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college students 'oral health behavior and Internet addiction. Also, university students' internet addiction was found to be an oral health behavior.

As a result of the above research, it is necessary to educate and guide appropriate internet use considering the influence on university students academic performance, and to develop oral health education program to recognize the problem of internet use regulation and the oral health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themselves.

■ keyword : | Addiction | Internet | Non Health Related Major | Oral Health Behavior |

I. 서론

인터넷이용률은 2000년대 초반 빠른 증가세를 보여 2000년 44.7%에서 2004년 70%대, 2017년 90.3%로 집계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남자의 이용률이 여자보다 높은 경향을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연령별로는 10대에서부터 40대까지 99% 이상에 달하는 높은 이용률을 보이며, 특히 10대에서 30대까지는 거의 100%에 달한다. 이는 젊은 연령층에서는 거의 모두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1].

2016년 가구 당 인터넷 접속률은 99.2%로 거의 모든 가구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2]. 접근성이 높은 인터넷은 인터넷사용률 증가와 중독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 2016년 조사결과에서,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을 포함)은 17.8%로 보고되었다[3]. 인터넷도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매체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중독과 관련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 중독과 관련하여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우울증과 불안 등 정신건강과의 상관관계를 주로 연구를 수행하여 보고하고 있다[4]. 김동일 등[5]은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논문 70편에 대해 메타분석 연구를 수행하여, 정신건강의 요인을 우울과 불안의 내재화 요인과 공격성과 충동성 요인들로 분류하여 분석했다. 그리고 인터넷 중독의 원인을 검증하는 선행연구들에서 인터넷 중독이 심리·정서, 가족, 학교, 사회·환경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에 의한 결과로 나타남[6-9]을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에서 인터넷 중독은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소비는 사람들의 삶의 일부가 되었으며, 인터넷의 발전으로 대학생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얻게 되고, 온라인 쇼핑 기회 및 빈도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10]. 이에 따라서 인터넷 중독, 쇼핑중독 등 행동과 관련된 중독 즉, 행동중독이 물질중독과의 공통성을 인정받아 중독의 한 분야로 포함[11]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구강보건행태는 구강건강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행해지는 일반적인 태도와 행위의 특성을 지칭한다[12].

선행연구들에서 대학생 인터넷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요소 연구[10], 대학생의 인터넷 게임 중독과 감각처리특성과의 관련성[13], 인터넷 중독이 남자대학생의 학업성취와 대학생활부적응에 미치는 영향[14], 대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15], 대학생의 우울, 불안, 충동성, 공격성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16] 등에 대한 연구만 있었다. 이에 연구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과 구강보건행태와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가 없었기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인터넷 중독과 구강보건행태와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고, 대학생들의 적절한 인터넷 사용 방법과 올바른 구강보건행태에 대한 지도와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K지역에 위치한 특성화에 선정된 4개 대학의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는 층화추출법(Stratified sampling)으로 신입생정원 수를 기준으로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로 나누고, 남·녀 1, 2, 3학년에서 나누어 표집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2017년 4월 18일부터 2017년 6월 10일까지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개별설문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600부를 설문하여 그 중 무응답, 불성실한 응답, 고정반응을 보이는 설문지 13부를 제외하고 총 587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S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IRB])의 승인번호: 2-1040781-AB-N-01-2017054HR)을 받아 진행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문

화정보건진흥원에서 2005년[17] 개발한 성인 인터넷 중독 진단척도(A-척도)를 사용하였다. 구강보건행태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는 김인아[18]가 추가 보완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구강보건행태를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특성 6문항, 인터넷 중독 척도 16문항, 구강보건행태 척도 20문항으로 총 42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척도는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인터넷 점수가 높을수록 중독으로 간주하였고, 구강보건행태는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구강보건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인터넷 중독 척도에서는 Cronbach's alpha 계수는 .92였고, 구강보건행태의 척도는 .86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수를 분석했다. 일반적인 특성에서 인터넷 중독과 구강보건행태의 차이분석은 두 그룹일 경우 독립성 t-검정 (independents t-test)을 실시했고, 두 그룹 이상은 분산

분석(variance analysis/ANOVA)을 실시했다. 구강보건행태는 빈도분석하여 백분율과 평균으로 제시하였으며, 인터넷 중독과 구강보건행태 간의 상관분석은 피어슨 상관분석(Pearson relation analysis)을 검정했다.

III. 연구결과

1.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과 구강보건행태 비교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인터넷 중독과 구강보건행태 비교는 [표 1]과 같다. 총 587명의 대학생 중 여학생이 55.9%로 남학생 44.1%보다 많았고, 보건계열 전공 64.5%로 비보건계열 전공 35.5%보다 많았다. 응답자의 학년은 2학년 37.7%로 가장 많았고, 흡연 유·무의 응답에서는 비흡연자가 74.9%로 흡연자 25.1%보다 더 많았다. 거주형태는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이 66.1%로 집(자취, 하숙 등)에서 거주하는 학생33.9% 보다 더 많았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과 구강보건행태 비교 (N=587)

변수	N(%)	인터넷 중독		구강보건행태	
		M±SD	t or F	M±SD	t or F
성별					
남성	260(44.1)	35.72±12.17	3.971***	36.51±11.69	0.483
여성	327(55.9)	31.87±11.27		36.08± 9.91	
전공					
보건계열	378(64.5)	32.88±11.72	-1.936	36.17±11.06	-0.157
비보건계열	209(35.5)	34.84±11.93		36.32±10.55	
학년					
1학년	187(32.4)	34.11±11.55	0.592	37.97±10.81	3.935*
2학년	223(37.7)	32.91±11.85		35.03±10.52	
3학년	177(29.9)	33.86±12.09		36.02±10.72	
흡연 유·무					
흡연	140(25.1)	37.12±12.25	4.114***	39.78±11.59	4.506***
비흡연	447(74.9)	32.47±11.47		35.17±10.21	
음주 유·무					
음주	327(56.1)	33.59±11.84	0.027	36.93±10.34	1.679
비음주	260(43.9)	33.56±11.82		35.43±11.16	
거주 형태					
집(자취, 하숙 등)	199(33.9)	34.07±11.57	0.727	36.40±10.42	1.213
기숙사	388(66.1)	33.32±11.95		36.20±10.90	

*p<.05, **p<.01, ***p<.001

인터넷 중독에서는 남학생에서 35.72점, 비보건계열에서 34.84점, 1학년에서 34.11점, 흡연자에서 37.12점, 음주자에서 33.59점, 주거형태에서 집(자취, 하숙 등)에서 34.07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성별과 흡연 유·무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1). 그리고 구강보건행태에서도 남학생에서 36.51점, 비보건계열에서 36.32점, 1학년에서 37.97점, 흡연자에서 39.78점, 음주자에서 36.93점, 주거형태에서 집(자취, 하숙 등)에서 36.40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학년별과 흡연 유·무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 차이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 차이의 결과는 [표 2]와 같다. 가상세계에 대한 지향에서 남학생이 7.38점, 비보건계열 학생이 7.25점, 1학년에서 7.11점, 흡연자에서 7.54점, 음주자에서 6.92점, 집(자취, 하숙)에

서 주거하는 학생에서 7.04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긍정적인 기대에서는 남학생이 7.84점, 비보건계열 학생이 7.75점, 1학년에서 7.47점, 흡연자에서 8.34점, 음주자에서 7.33점, 집(자취, 하숙)에서 주거하는 학생에서 7.45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내성 및 몰입에서는 남학생이 8.11점, 비보건계열 학생이 7.79점, 1학년에서 7.75점, 흡연자에서 8.41점, 음주자에서 7.77점, 집(자취, 하숙)에서 주거하는 학생에서 7.76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인터넷에 대한 자기인식에서는 남학생이 7.18점, 비보건계열 학생이 6.88점, 1학년에서 6.99점, 흡연자에서 7.34점, 음주자에서 6.77점, 집(자취, 하숙)에서 주거하는 학생에서 6.73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의 변인간의 차이는 공통적으로 비보건계열 1학년, 흡연자와 음주자로 집(자취, 하숙 등)에서 주거하는 남학생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과 흡연 유·무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 차이

(N=587)

변수	인터넷 중독							
	가상세계에 대한 지향		긍정적인 기대		내성 및 몰입		인터넷에 대한 자기인식	
	M±SD	t or F	M±SD	t or F	M±SD	t or F	M±SD	t or F
성별								
남성	7.38±2.98	3.631***	7.84±3.12	4.230***	8.11±2.99	3.372***	7.18±2.86	3.613***
여성	6.54±2.67		6.78±2.91		7.29±2.86		6.34±2.75	
전공								
보건계열	6.73±2.79	-2.121*	6.97±2.93	-2.981**	7.57±2.93	-0.866	6.63±2.87	-1.047
비보건계열	7.25±2.90		7.75±3.20		7.79±2.98		6.88±2.75	
학년								
1학년	7.11±2.77	2.008	7.47±2.96	1.252	7.75±2.96	0.320	6.99±2.78	1.341
2학년	6.61±2.88		7.01±3.11		7.52±2.85		6.56±2.78	
3학년	7.07±2.84		7.33±3.07		7.66±3.04		6.62±2.92	
흡연 유·무								
흡연	7.54±2.89	3.040**	8.34±3.14	4.943***	8.41±3.09	3.541***	7.34±2.85	3.032**
비흡연	6.71±0.13		6.91±2.94		7.41±2.86		6.52±2.79	
음주 유·무								
음주	6.92±2.83	0.094	7.33±3.03	0.650	7.77±2.94	0.857	6.77±2.88	0.554
비음주	6.90±2.86		7.16±3.08		7.56±2.95		6.64±2.76	
거주 형태								
집(자취, 하숙 등)	7.04±2.72	0.755	7.45±3.01	1.134	7.76±2.94	0.625	6.73±2.79	0.116
기숙사	6.85±2.90		7.15±3.07		7.60±2.95		6.71±2.85	

*p<.05, **p<.01, ***p<.001

3. 연구 대상자의 구강보건행태

연구대상자의 구강보건행태 결과는 [표 3]과 같다. 구강보건행태는 “수면 시 편측으로 누워자기”는 2.9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손으로 턱 괴기”는 2.85점,

“편측저작하기”는 2.30점, “카페인 섭취 증가”는 2.26점, “입술 깨물기”는 2.23점, “단단한 음식 자주 먹기”는 2.14점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3. 연구대상자의 구강보건행태

(N=587)

변인	*구강보건행태 %					Mean±SD
	1	2	3	4	5	
엄지손가락 빨기	81.6	10.1	7.0	1.2	0.2	1.28±0.66
손톱이나 물건 깨물기	55.2	13.6	16.5	10.9	3.7	1.94±1.22
껌 자주 씹기	54.7	23.5	13.5	6.5	1.9	1.77±1.02
편측저작하기	36.6	20.3	23.9	14.8	4.4	2.30±1.22
단단한 음식 자주 먹기	38.7	24.2	24.7	9.5	2.9	2.14±1.12
치아끼리 부딪히기	66.3	19.3	10.2	3.1	1.2	1.54±0.88
이갈이	68.1	17.2	8.7	4.6	1.4	1.54±0.92
이 악물기	54.3	19.8	16.9	6.6	2.4	1.83±1.08
손으로 턱 괴기	22.1	11.9	31.3	28.3	6.3	2.85±1.23
턱 내밀기	59.3	22.3	11.9	5.5	1.0	1.67±0.95
입술 깨물기	39.4	19.1	23.9	15.0	2.7	2.23±1.19
혀나 뺨 깨물기	54.9	21.6	14.3	7.0	2.2	1.80±1.06
혀 내밀기	68.7	19.6	8.7	2.4	0.7	1.47±0.80
혀로 치아 밀어내기	62.2	20.3	10.7	4.9	1.9	1.64±0.98
구호흡하기	45.7	25.4	19.1	8.2	1.7	1.95±1.06
수면 시 이갈이	64.1	16.9	10.6	7.0	1.5	1.65±1.02
수면 시 편측으로 누워 자기	22.3	12.8	27.3	27.6	10.1	2.90±1.30
통화 시 전화를 턱에 괴기	43.4	24.9	18.6	10.6	2.6	2.04±1.12
흡연량 증가	72.2	7.0	10.2	7.8	2.7	1.62±1.11
카페인 섭취 증가	41.2	17.4	21.5	14.0	6.0	2.26±1.28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4. 인터넷 중독과 구강보건행태와의 상관관계

인터넷 중독과 구강보건행태와의 상관관계의 결과는 [표 4]와 같다. 인터넷 중독의 변인 중에서 긍정적인 기대와 구강보건행태의 상관관계는 0.394로 변인 중에서 가장 낮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긍정적인 기대와

내성 및 몰입에서 0.752, 가상세계에 대한 지향과 긍정적인 기대에서 0.714로 각각 0.7 이상으로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인터넷 중독에 따라 생성되는 구강보건행태와의 상관관계는 모든 상관계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1).

표 4. 인터넷 중독과 구강보건행태와의 상관관계

(N=587)

변인	인터넷 중독				구강보건행태
	가상세계에 대한 지향	긍정적인 기대	내성 및 몰입	인터넷에 대한 자기인식	
인터넷 중독	가상세계에 대한 지향	1			
	긍정적인 기대	0.714***	1		
	내성 및 몰입	0.681***	0.752***	1	
	인터넷에 대한 자기인식	0.652***	0.594***	0.688***	1
구강보건행태	0.436***	0.394***	0.397***	0.425***	1

***p<.001

IV. 고찰 및 결론

우리 일상에서 인터넷 환경은 없어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매체로 인식되어지면서 그에 따른 중독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넷 환경이 주는 사회적인 폐해라고도 할 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매체중독의 부정적 영향은 기존의 데스크 탑, 노트북, 넷북 컴퓨터 기반의 인터넷 중독에서 스마트폰 등의 다양한 형태의 매체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5]. 이에 따른 과도한 인터넷사용은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관련이 있으며,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포괄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예방 및 치료 등에 개입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19]고 보고하고 있다.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 대인관계 장애와 사회 고립 등의 문제를 야기 할 수 있고, 잘못된 구강보건행태는 학교생활의 다양한 문제와 자신의 건강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20]고 보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터넷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있는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587개 설문자료를 얻어 분석하였다. 인터넷 중독에 따라 생성되는 구강보건행태와의 상관성을 검증하고 올바른 구강보건행태를 위한 지도와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과 구강보건행태의 비교는 인터넷 중독에서 비보건계열 1학년이며, 흡연자와 음주자로 집(자취, 하숙 등)에서 주거하는 남학생에서 높게 나타났다. 대학교 1학년에서 인터넷 중독이 높게 나타난 것[21]의 연구와 일치하였으며, 대학생의 경우 인터넷 중독수준에 따라 학교적응 정도에 차이를 보이고 인터넷 의존성이 클수록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보인다[22]고 보고하고 있다. 구강보건행태에서도 비보건계열 1학년이며, 흡연자와 음주자로 집(자취, 하숙 등)에서 주거하는 남학생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은 학업과 놀이문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구강건강을 소홀히 취급되는 경향[23]있기 때문이라 보고하고 있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에서 변인 차이는 가상세계에 대한 지향과 긍정적인 기대, 내성 및 몰입, 인터넷에 대한 자기인식의 모든 변인에서

비보건계열 1학년, 흡연자와 음주자로 집(자취, 하숙)에서에서 거주하는 남학생에게서 인터넷 중독 변인이 높게 나타난 것[24]의 연구와 일치하며, 대학생은 인터넷 이용은 주로 집에서 유선 데스크 탑을 가지고 접속하고 있었으며, 인터넷을 주로 정보 탐색, 게임이나 오락,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 관리, 채팅 등의 연계 추구를 위해서도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었다[24]고도 보고하고 있다.

인터넷 중독에 따라 생성되는 구강보건행태는 “수면시 편측으로 누워 자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잠자기 전에 인터넷 사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구강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머리를 옆으로 두는 것’으로 악관절 장애의 기여요인 중 행동요인에 속하며, 턱과 목의 근육과 관절이 긴장 될 수 있다[25]고 한다.

따라서 인터넷 중독과 구강보건행태에 관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인터넷 중독 변인에 따라 생성되는 구강보건행태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대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에 따라 생성되는 구강보건행태와의 상관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K지역의 4개 대학의 재학생들을 설문조사 하였기에 표본선정에 있어 지역적인 제한성이 있으며, 대학생 전체로 일반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대상선정에 있어 확대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대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에 따라 생성되는 구강보건행태와의 상관성이 있음을 검증한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대학생들의 학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적절한 인터넷 사용 지도와 교육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그에 따라 대학생들을 위한 인터넷 사용 규제를 위한 교육과 대학생 스스로의 구강보건행태의 문제성을 인지할 수 있는 구강보건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1] 국가지표체계, “인터넷이용률,” <https://www.index>.

- go.kr/unify/idx-info.do?idxCd=4056, 2019.01.11.
- [2] 미래창조과학부, 2016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16.
- [3] 미래창조과학부, 2016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2016.
- [4] 정구철, “대학생들의 정신건강과 인터넷 중독 및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4호, pp.655-663, 2016.
- [5] 김동일, 이윤희, 강민철, 정여주, “정신건강 문제와 인터넷 중독: 다층메타분석을 통한 효과크기 검증,” 한국상담학회, 제14권, 제1호, pp.285-303, 2013.
- [6] 장재홍, 김광현, “인터넷 중독에 관한 국내·외 연구동향과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1996년부터 2007년까지 학술지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제6권, 제4호, pp.157-183, 2009.
- [7] 김수아, 김세은, “한국 사회의 미디어 중독 연구 경향 분석,”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제23권, pp.5-46, 2012.
- [8] E. Esen and D. M. Siyez, “An Investigation of Psycho-Social variables in Predicting Internet Addiction among Adolescents,” Turkish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Guidance Journal, Vol.4, No.36, pp.127-138, 2011.
- [9] N. Shields and J. Kane, “Social and Psychological Correlates of Internet use among College Students. Cyberpsychology,” Journal of Psychosocial Research on Cyberspace, Vol.5, No.1, pp.1-11, 2011.
- [10] 유혜진, *대학생 인터넷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요소 연구 -패션 제품을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 [11] 최삼욱, *행위중독: 인간의 행동이 중독의 대상이 되다*, 서울:NUN, 2014.
- [12] 윤성욱, 장선주, “일부지역 보건 및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구강보건지식과 구강보건행태의 융합적 관계,”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7권, 제1호, pp.97-104, 2016.
- [13] 박영주, “대학생의 인터넷 게임 중독과 감각처리 특성과의 관련성,”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제11권, 제4호, pp.153-159, 2017.
- [14] 정문경, 김경희, “인터넷 중독이 남자대학생의 학업성취와 대학생활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정복지학회, 제26호, pp.107-128, 2012.
- [15] 권미영, 황지영, 정혜윤, 송시형, “대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글로벌사회복지연구, 제3권, 제2호, 2013.
- [16] 최은미, 신점란, 배재홍, 김명식, “대학생의 우울, 불안, 충동성, 공격성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8호, 2014.
- [17] 한국 정보 문화 진흥원, *성인 인터넷 중독 진단 척도(A-척도)*, 2005(12).
- [18] 김인아, *심리적 스트레스가 턱관절 장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구강 악습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19] 정슬기, 이재경, 이수영, 이수비, “한국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 실태와 공중보건학적 모델에 기반한 인터넷 중독 영향요인 연구,” 알코올과 건강행동학회지, 제18권, 제2호, pp.59-77, 2017.
- [20] 이현옥, 김선미, “일부 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구강 악습관과의 관련성,” 치과위생과학회지, 제15권, 제6호, pp.721-727, 2015.
- [21] 정미영, 조옥희,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위험 정도에 따른 사회 심리적 건강,”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5호, pp.366-376, 2013.
- [22] 최현석, 하정철,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 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제22권, 제3호, pp.437-448, 2011.
- [23] 이선미, 하정은, 김민지,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학교 내 구강건강관리행태 비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2호, pp.696-702, 2016.
- [24] 이정숙, “대학생의 대인 관계가 인터넷 중독 수준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매개변인으로,” 청소년상담연구, 제20권, 제2호, pp.115-134,

2012.

[25] 김기석, “악관절 장애의 기여요인,” 대한치과의 협회지, 제29권, 제5호, pp.354-358, 1991.

저 자 소 개

장 정 유(Jung Yoo Jang)

정회원



- 2006년 8월 : 삼육대학교 보건학
과(보건학석사)
- 2011년 8월 : 단국대학교 교육학
과(교육학박사)
- 2017년 2월 : 경북대학교 보건학
과(보건학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안동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교육학, 보건학